

'찬사'와 '비난' 지양한 김일성評傳

徐大肅 지음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최상급의 수식어와 극존칭이 동원된 공산주의적 선전. 그리고, 한낱 '괴수'쯤으로 평가절하되는 반공주의적 비난. 이 두 겹의 장막 속에 갇혀 그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金日成에 대한 본격연구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徐大肅 지음 / 徐柱錫 옮김, 청계연구소)이 최근 간행됐다. 지난해 9월 美컬럼비아大 출판부에서 영문출판됐던 것을譯刊한 이 책은 특히, 그간의 정치적 선전과 反선전이 야기시킨 광신적 찬사와 극도의 편향을 다같이 지양,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한 김일성평전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저자(美하와이대 한국연구소장)는 모스크바·北京·평양을 방문하여 그쪽 학자들과의 토론 및 관련자 인터뷰, 관계자료의 광범한 수집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책을 집필, 선부른 부풀림이나 깎아냄 없는 김일성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남한측에서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보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경력에 대해 저자는 "현재의 북한주석 김일성은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했던 바로 그 김일성"이라고 일단 인정하면서도, 반면 그것이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주류적 전통은 결코 아니었음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개인사를 북한의 정치사에 중첩시켜 연구함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이해가 곧 북한사에 대한 이해이게끔 이끌고 있는 점도 이 책의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해방 당시 국내의 조직기반도 없고 대중적 지명도도 미미



했던 김일성의 집권과정, 한국전쟁에서의 실패를 오히려 정적 숙청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그의 통치술, 그리고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김일성의 전모가 북한현대사와 맞물려 날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저자 스스로의 표현대로 이 책은 "일반적인 한국사람들이 놀랄만큼 김일성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도 있지만, "김일성이 북한에 건설한 것은 자기의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정치체제이며, 이런 뜻에서 김일성은 한국에 공산주의정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죽어간 모든 한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하다.

청계연구소/A5신/402면/4,500원

최초의 한·중·일 공동연구성과

「한국경제의 분석」3국서 동시 출간

한국경제에 대한 한·중·일 경제학자들의 최초의 공동연구성과를 묶은 「한국경제의 분석」이 출간,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측의 金泳鎬 교수(경북대 경제경영 연구소장), 중국측의 趙鳳彬 교수(吉林大 경제연구소장), 일본측의 小川雄平 교수(西南學院大) 등 3인의 공동편집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작년에 東京에서 일본어판(일본평론사)이 나온데 이어 지난 3월 북경에서도 중국어판(展望出版社)이 출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책은 ①한국경제의 미래 ②한국경제의 전개과정 ③한국경제의 구조와 특질 ④한국경제와 세계경제 등 4부로 구성, 2편의 對談과 11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집필진은 앞의 3인 외에 徐文吉(길림대 경제연구소 전임강사)·張寶仁(·)·凌星光(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진국경제종합연구실장)·河合和男(일본奈良산업대 조교수)·朴一(立正大 전임강사)·金早雪(信州大 전임강사)·平川均(長崎국제경제대 조교수)씨 등 모두 10명. 특히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대부분이 재중국동포 및 재일동포라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번에 출간된 국내판에는 「세계경제 속의 한국의 위치」(金泳鎬), 「21세기에 있어서 세계와 아시아의 정치·경제 정세」(凌星光), 「環境解·동해 경제권」(小川雄平) 등 중국판 및 일본판에는 없는 3편의 새 논문이 추가됐다. 대체로 3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려



는 3국 학자들의 주목할만한 어프로치의 성과"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 공동연구는 특히 한국경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중국에서 주목을 끌어 중국의 「國外社會科學」誌에 크게 소개된 바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동아시아의 다이나미즘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호평을 얻은 바 있다.

권말에는 한국경제에 관한 한국·일본·중국·구미의 문헌목록을 정리,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서문당 / A5신 / 350면 / 5000원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279·1323

네 모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 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다로그
표지 디자인·팜플렛

☎ 313-4723 이 상 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

번역전문

일본어(고전·현대어)
영어
중국어

*신속·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히 한
국인의 감각에 맞게 제2의 창작 정
신으로 번역함.
*문학작품·전문서적 등 어떠한 번역
물도 다 취급함

세계외국어학원 번역부
☎ 553-9015~6

유진 AD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
전산 시스템 가동

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전산사식·사진식자·편집·광고기획
TEL. 273-6486 FAX. 273-6173
서울특별시 중구 자동 2가 69 (동명 BD3층)